



채소지

채소를 알고 기록하는 곳

똑같은 채소라도, 농부마다 수많은 채소의 맛이 있습니다. 채소지에는 채소를 키우는 농부의 삶과 농사 이야기를 담습니다.

흙과 풀과 벌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의 숲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그곳에, 그 숲에서 자라나 지금 가장 맛있는 채소가 있습니다.

그 농부만의 특별한 채소 맛을 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흙에서 키우는 딸기

두번째 이야기

우리 방식대로 짓는 농사

세 번째 이야기

지금 가장 맛있는 채소, 3월



부모님의 농장에서 함께 꿈을 키우는 딸들, 고양이 텃밭

자연의 힘을 빌어 건강한 땅을 만들고 그 흙의 힘으로 딸기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농부 가족. 늘 부지런히 계획을 세우는 엄마와 묵묵히 농사짓는 아빠, 그리고 부모님의 농장에서 새로운 농사에 대한 꿈을 키우는 딸들의 조화가 재미있다. 초보 농부들의 큰 꿈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애정과 걱정이 달큰한 딸기향에 섞여 비닐하우스 안을 따뜻하게 채우는 이 곳, 벌들이 날고 풀이 무성한 밭가에는 딸기향이 날 것 같은 마늘도 함께 자란다. 인근에 고양이들이 자주 와서 놀다 간다고 이름도 고양이텃밭이라는데, 고양이들은 못보고 지금이 정점이라는 딸기의 맛은 실컷 보고 왔다.

하우스안에서 익어가는 딸기 따기에 바쁜 2월,
흙의 힘으로 딸기를 키우는 가족, 고양이 텃밭을 만났다.

고양이텃밭

두 번째 이야기

우리 방식대로 짓는 농사



내가 먹는 심정으로 농사짓는 걸
알아주는 시장이 있는게 고맙더라고요.

김빛나 : 제가 처음 부모님과 같이 농사를 시작
했을 때는 전부 공판장에 납품했었어요. 처음에
도매로 넘길 때 충격이 컸어요. 판매가가 박스당
100원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질을 따지지 않으

니까요. 대부분 마트에서는 수경 딸기를 원해요. 유통하기 좋고 대량 생산이 되니까요. 우리는 생산량은 적지만 고객에게 바로 판매가 가능해요. 양이 더 줄더라도 유기농으로 전환하고 싶어요. 올해부터는 비료도 안하고 유기질만 사용하고 있어요. 살균 살충제도 안쓰고, 볏짚을 땅에 섞어 넣기도 하고요. 땅이 5년은 관리가 되어야 그때부터 유기농으로 인증 가능하다고 해요. 토경과 유기농으로 농사를 계속 짓고 싶어요.

재작년에는 40% 직거래했어요. 익산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4곳 있거든요. 나머지 60%는 공판장에 냈어요. 그런데 공판장을 할거면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직거래도 하다보니 둘 다 맞추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작년 봄에 직거래 시장을 처음 나가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직거래로 70%를 판매했어요. 올해는 아직 공판장에 안 냈어요. 공판장 가격이 더 좋을 때도 있는데, 판매가가 들쭉 날쭉이 너무 심해서 타격이 심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크기가 작으니 익산 공판장에서서는 취급을 잘 안해주기도 하구요.

공판장에 납품하려면 크기를 키워주는 약인 비대제를 사용해야 해요. 저희도 전에는 칼슘 같은게 들어있는 천연 비대제를 넣기도 했어요. 대부분 성장촉진제 같은 호르몬제가 들어있는 비대제를 많

이들 쓰죠. 딸기 속이 빈 것은 비대제를 사용한 경우가 많아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에서 딸기 교육을 받으러 가면 지역에 대농들이 대부분인데 거의 다 그런 비대제를 쓴다고 해서 고민하게 돼요.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추천 받아서 서울시 농부의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어르신인 주변 농부님들이 서울까지 운전을 어려워 하시니 20대인 저희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확실히 농업의 상품성에 대해 알려주더라고요. 익산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농부가 가족이거나 해서, 제주에 가면 집에 굴나무 하나씩 있는 것처럼 딸기가 정말 많아요. 지역에서는 수요가 적은 거죠.

작년에 처음 '서울 농부의시장'에 나갈 때 아빠가 운전해서 저희를 내려주고 가셨다가 끝나면 데리러 오셨어요. 아빠는 팔고 이런걸 못 하시겠대요. 저희가 팔고 있으면 아빠는 따릉이 타고 서울 구

경하세요. 시티투어버스도 타고 두바퀴 돌고. 야 재밌다 하시면서. 내가 스무살때 와보고 몇십년 만이다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시골쥐가 서울 온 것 처럼 되게 좋아하셨어요. 하하~

그런데 농장을 비우게 되니까 그해 농사가 망했어요. 딸기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딸기 끝나면 메론이나 수박 등을 심는데 그런게 다 죽었었어요. 지금은 저희 두 자매만 시장에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 혼자 다닐 것 같아요.

마르쉐는 작년 11월부터 나갔는데, 딸기철이 아닐 때에는 토마토와 채소 등을 판매하니까, 기존 딸기팜이라는 이름보다 손님들에게 잘 기억될 수 있는 이름을 새롭게 지으면 어떠냐고 마르쉐친구들에게 제안받았어요. 그래서 언니랑 같이 ‘고양이 텃밭’이라는 새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마르쉐는 손님이 많으니 혼자 가기 겁나기도 하고, 설명을 많이 해야하는 시장이니 언니랑 양쪽에서 설명을 하게 돼요. 다른 시장에서는 얼마에요 정도만 말하면 되는데 마르쉐는 소통을 원하는 손님이 많더라고요. 딸기주스도 판매하려고 가져가봤는데 마르쉐 손님들은 원물 자체를 가장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신기하고 고마워요.



김영아 : 딸들이 마르쉐에서 완판 하고 오더라고요. 우리처럼 내가 먹는 심정으로 농사짓는 걸 알아주고 사주는 손님들이 있고, 시장이 있는게 고마워요.

선별하지 않고 종이상자에 담고 싶어요.

김빛나 : 익산은 딸기 선별 작업이 원칙이라 그 방식대로 따르고 있는데, 선별하지 않고 종이상자에 그냥 담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공장을 알아보니 대량으로 제작해야 하더라고요. 식품 박람회에서 공장을 알아보기도 했어요. 종이박스가 개당 1천원 정도인데, 대량 제작이 엄두가 안나

못하고 있어요.

투명 플라스틱 박스를 쓰면 줄세워 딱 맞춰 넣어야 하니 담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손이 더 가게 돼요. 잘 무르는 토경 딸기 특성상 손을 대는 만큼 빨리 상하는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스티로폼 박스를 쓰고 있어요. 비닐덮개도 안쓰려고 했는데, 이동할 때 필요하다고 하시는 손님이 있어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포장은 계속 고민이에요.

마르쉐에서 딸기를 두번 판매해봤는데 첫 판매시 용기를 다시 가져오시면 딸기를 좀 더 드리고, 용기는 농장에서 재활용한다고 말씀 드렸더니 15명 정도가 다시 가져다주셨어요. 손님의 1/5 정도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포장용기를 따로 준비해오신 손님도 있고요. 정말 놀랐어요. 주스로 먹기 좋은 것들을 좀 더 담아드리거나 채소를 좀 더 드리고 있는데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용기는 농장에 가져와서 물로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면 문제 없이 다시 쓸 수 있어요. 이런 박스는 재사용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공동선별장에 보내는 박스를 이용해서 아예 그대로 가져가서 손님이 원하는 만큼 무게를 달아서 판매해 볼 생각도 있는데, 혼자 나가게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소비자와의 약속,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싶어요.

김영아 : 저희도 관행농을 했었는데 유기농으로 가려면 점차 시도해가야지 전면적으로 바꾸기는 힘들어요. 내 방식대로 하고 맛있게 깨끗하게 농약 안하고 가는게 좋아요. 무농약 유기농 이런 인증은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검사도 너무 자주 나오고. 이렇게 하는게 마음이 편해요.

딸들은 아직 농사를 많이 안지어봐서 생각이 다르지만, 어쩔 수 없이 약을 쳐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날씨가 급변할 때 등 병이 생길 때는 초세에 확 잡아야돼요. 아니면 한번에 다 병나서 잃어버려야 하니까. 몇 동만 유기농으로 해서 따로 판매하고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처음부터 5동을 다 해서 농사가 망하는 실
농이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어찌보면 도박
이라고 봐야죠.

2019년에도 가을에 심어놓고는 너무 더워서 딸기
나무가 자라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보면 많이 작
은 거예요. 더워도 잘 자라는 종자가 있는데 알
이 작고 수확이 적다고도 하더라고요. 품종은 계
속 알아보고 있어요.



김빛나 : 엄마는 일욕심이 많아 농사도 더 하고
싶어하세요. 땅도 더 넓혀서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엄마는 쉬고
아빠랑 저희 자매가 하면서 농사를 좀 작게 하고
덜 매이고 싶어요. 딸기도 한품종만 많이 안하고
다양하게 키우고 싶어요. 양을 좀 줄이고 농장도
줄이고 싶어요. 채소 키우는 밭은 여기서 3~40

분 거리거든요. 거기는 빌린 거니까 없애고 우리 땅인 여기만 하고 싶어요.

마르쉐 다니며 느끼는게, 많은 농부님들이 다 품종 소량 생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설향만 심었는데 죽향 등 다양한 딸기로 해서 맛이 뭐가 다른지 등 설명하면서 해보고 싶어요. 산딸기처럼 작게 나오더라도 이게 뭐가 다르다 설명도 하고요. 돈을 좀 덜 벌기도 하겠지만요. 부모님은 100% 유기농을 어려워하시긴 해요. 계속 얘기해나가고 있어요. 아빠랑 저는 유기농으로 가려고 하는데 엄마는 계속 걱정이 많으세요. 엄마는 로컬푸드가 주 고객이고. 저는 마르쉐 손님이 중요하니 각각 고민중이에요.

김영아 : 정말 어려워~ 두려운거죠. 지금도 힘든데. 소득이 없어질까봐. 로컬푸드매장 같은데서는 인증마크 하나만 더 붙이면 가격이 달라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사서 먹어보면 판매 속도는 우리에게 더 빨라요. 딸들이 아직 농사 경험이 많지 않아 서로 생각이 달라요. 화학비료 안 넣은지 3년 차예요. 그래도 아직 땅에 많이 남아있을거예요. 5년은 지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딸기를 보면 알아요. 색이며 단단한 경도가 달라요. 딸기를 10년 넘게 했으니깐요.



로컬푸드매장에 내는게 매력이 있어요. 38개 품목을 계절에 맞춰서 하자고 가족을 설득하는 중이에요. 로컬푸드매장에 상추는 일년 내내 계속 내요. 고객과의 약속이니깐. 가격 선두는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익산은 채소가 굉장히 저렴해요. 로컬푸드에 참나물이나 부추 같은 것도 내는데 저희는 좀 비싼 편이에요. 이렇게 키웠으니 이정도 받아야 된다 하면 저희는 그 고집을 지켜요. 약속한 게 있으니 시세가 비싸다고 금방 판매가를 올리고 그러는 것도 저희는 원치 않아요. 소비자들이 농산물만 있는데 로컬푸드매장에 와주는 거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 같은 거예요. 그걸 지키고 싶어요.



꾸준히 변함없는 농부가 되고 싶어요.

김창원 : 농부로 사는건 심적으로 여유가 있어
좋죠. 아쉬운 것은 문화시설이 멀어 문화생활을
잘 즐기지 못한다는 점. 그래도 딸들이 귀농하고
는 같이 영화 보고 여행도 다니며, 아쉬웠던 점
들도 해소가 되었어요. 요즘도 함께 일을 빨리 끝
낸 다음 다같이 영화 보러 가죠. 겨울과 봄에는
딸기일이 너무 바빠 자주 다니지는 못하지만, 여
름이 되면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생겨 즐기며 살
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가족들과 건강하고 무탈
하게 지내는게 가장 바라는 바죠.

김영아 : 저는 밭에서 흙을 밟으며 일을 할 때 모든 근심이 없거든요. 정말 농사일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게 가장 좋은점인거 같아요. 아쉬운점은 제가 몸이 안좋아져 딸들에게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점이 너무 미안하죠. 제 자식인지라 아직도 마냥 어리게만 보이는데 딸들이 하기에는 농사일이라는게 정말 힘든 일들의 연속이거든요. 딸들이 지치지 않고, 잘 이겨내줬으면 좋겠어요.

김한나 : 제가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으며, 영상으로 남기기도 해요. 그럴때마다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먹을까 라는 고민도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농사지은걸 요리해먹을 때 그 때가 농부로서 가장 행복한거 같아요.

김빛나 :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게 좋아요. 직장생활을 타지에서 했었는데, 학창시절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도 너무 일찍 시작해 가족과는 17살 이후로 계속 떨어져 지냈거든요. 귀농을 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는게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요. 농사일이 정말 어렵고 배울게 많아 힘들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김영아 : 농부로 살다보니 농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정말 고마워요. 딸들이 마르쉐에 다녀오면 정말 좋아하더라구요. 손님들이 저번 시장에서 맛있게 드셔줬다며.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저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농산물을 어떻게 키우는지 농업이나 농산물에 대해 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거 같아요.

김한나 :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농사짓고 싶어요. 꾸준히 노력한다는게 정말 힘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적부터 정말 한해도 쉬지 않고, 언제나 부지런히 밭에 나가 농사일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꾸준히 변함없는 농부가 되고 싶어요

김빛나 : 농부는 제 평생직장이 될 거 같아요. 언니와 생각이 똑같이 저희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농사짓고 살고 싶어요. 지금은 농장 두 곳을 다니며, 너무 바쁘게 일을 하는데 앞으로는 농장을 좀 더 줄여서 품질에 더욱 신경을 쓰며, 저희 농산물을 드시는 소비자 분들께 더 좋은 농산물을 소개하고 싶어요.